데스크시각

김 주 정

부산에선 대통령 후보 풍년인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6월 이후에 대선에 뛰어들 것이라고 알려진 엊그제부터 정가는 벌집 쑤신듯하다. 김두관 경남지사, 김정길 전 장관,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안 원장이 '2012 대선행'을 언급하면서 여야 모두 '속셈'이 분주하다.

이들 4명은 부산·경남 인물이다. 부산 출신 대선후보 풍년가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통합민주당의 개혁을 방해하는 구세대로 몰려 폐족의 위기에 처한 광주·전남으로선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근 10년간 이렇다 할 정치인을 키워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전북만해도 정동영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 종로에서 화려하게 부활한 정세균이라는 스타를 키워내지 않았는가.

암울한 호남정치의 미래

너나 할 것 없이 머리를 맞대고 그 원인부터 따져야 할 때다. 무엇보다 DJ 이후 광주·전남 정치인들의 도전정신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도식에 빠져 민심의 바다가 아닌 '보스'만을 쳐다보는 못된 버릇이 굳어졌다. 본선이 계란 후라이 요리보다 쉬운 탓에 치열하게 바닥을 읽을 기회를 갖지 못했다. 지역구 자연마을 모두를 제대로 섭렵하지 못하고 금뱃지를 단 의원들이 숱하다.

수년 전 총선에서 어떤 후보는 반드시 하루에 두어번 'PC게임'을 해서라도 무료함을 달랬고, 민심탐방을 핑계로 느긋한 사우나까지 즐기면서 당당히 여의도 입성에 성공, "역시 놀고도 뱃지를 다는 한량(閑良)정치의 대가"라는 '전설'이 아직도 지역정가에 회자한다.

그 의원은 큰 기대와 달리 도모하는 일마다 성과를 내놓지 못하거나 모처럼 한 건 맡아도 리더십이 없어 늘 조롱거리가 됐다고 한다. 다른 후보들도 공천된 이후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민심읽기가 소홀한 토양에서 자란 정치인이 중앙 무대에서 제 몫을 하기 힘들고 눈 앞의 제 것 챙기기에 급급할 것은 뻔하다.

부산에선 이른바 '낙동강 전선'이라고 부를 정도로 피 튀는 민심읽기 전쟁이 한바탕 치러졌다. 호랑이를(대권을) 잡기 위해 그 굴로(민정당으로) 들어가 성공한 YS를 필두로 노무현, 안철수까지 도전적인 정치적 유전자가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부산 사람들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 굵직한 지역민원을 정치권에 들이밀었을 것이고, 중앙정부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본선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이나 강원, 충청지역도 비슷하다.

광주·전남 통합민주당 후보들이 이번에도 제 역할을 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당이 제대로 된 민생공약도 없이 고전하고 있는데 반해 비교적 여유 있는 그들이 나서 뭔가 정책지원을 했다는 자랑(?)은 없었다.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 10명이 국립 5·18묘지에 모여 호남이 홀대당하고 있다는 면책성 주장이 전부다.

공천 과정도 크게 잘못됐다. 민주당은 지역민들이 원했던 현역 물갈이를 시원하게 단행했어야 옳다. 하지만 현역에 유리한 '모바일 국민경선'을 도입해 자살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부르고, 동원선거와 그 과정에서 각종 불·탈법을 양산해 민심읽기에 실패한 것이다.

전국적 인물 될 역량 키워야

광주 동구에서 선거인을 불법모집하다 발각된 전직 동장이 동사무소 옥상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숨진 것은 이미 모바일 경선이 실패했다는 얘기다. 능력과 참신성을 두루 갖춘 신진들의 정치권 진입에 장벽이 됐으며 돈과 조직, 인지도에서 앞선 현역 의원들에게 여의도행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 '호남 민주당'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빌미까지 던졌다.

지역민에게 이제 총선이 던진 결과는 허탈과 암울 뿐이다. 앞으로 4년간의 정치가 지역적으로 비전 내지 '덧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지역 정치인들이 어떤 역할과 처신을 해야 할 지는 자명하다.

먼저 전국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물이 되기를 주문한다. 텃밭에서 한번 당선되면 그만큼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여의도에서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 그리고 다음 선거엔 수도권으로 옮겨 크나큰 '민심의 바다'를 헤치며 도전하라. 지역민은 이를 통해 정국을 주도하고, 향후 대선을 향해 뛰는 안방 출신 스타를 고대하고 있다.

〈선임기자〉 jjnews@kwangju.co.kr

사설

빗나간 교육정책에 흔들리는 '실력 광주'

광주지역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상위권 성적이 하루가 다르게 크게 하락한 것으로 드러나 '실력 광주'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우려됐던 고교 학력 저하가 현실화됐다는 지적과 함께 일선 학교에서 대입 진학지도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이 현재 3학년이 2학년 때인 지난해 6월과 11월, 올해 3월 등 3차례 치른 전국학력평가 1등급 추이를 분석한 결과, 광주 상위권 학생의 1등급 비율과 학생 수가 격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와 수리, 외국어 등 3개 영역에서 1등급을 맞은 학생 수는 지난해 3611명, 3568명에서 올해는 3099명으로 500명 가까이 줄었다. 비율도 7.8%, 7.7%에서 7.2%로 뚝 떨어졌다.

모의고사는 지금까지 대학 입시의 척도가 돼 왔고, 성적 여하가 입시를 좌우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7년간 전국 1위라는 '실력 광주'의 위상이 자칫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성적 저하는 무엇보다 교육의 안정과 균형보다는 급격한 정책 변화가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장휘국 교육감이 취임하자마자 그동안 고등학교에서 실시해 온 심화반 금지와 방과후 야간자율학습 단축, 방학 중 자율학습 제한 등 지나칠 정도로 규제해온 게 사실이다.

우리는 장 교육감에 대해 변화와 개혁은 필요하나 학교와 학생의 경쟁력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누차 천명한 바 있다. 타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심화교육을 장 교육감의 진보이념에 따라 강제적으로 막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이다.

실력이 교육의 전부라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라도 장 교육감은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 오랜기간 차별과 홀대 속에 광주를 지킨 게 바로 실력이 아니던가.

금융권, 삼성 협력업체 '대출 족쇄' 안 된다

금융권에 삼성전자 협력업체에 대한 대출 경계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돈줄이 막혀 건실한 기업마저 자금난을 겪으면서 연쇄 도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제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1차 협력업체의 부도로 지역 금융권에 삼성 협력업체의 부도 도미노 공포가 일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권이 삼성 협력업체에 대해 옥석을 가리지 않고, 대출을 제한하면서 우량 업체들마저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의 광주지역 중소기업 대출현황도 이를 반증해준다. 지난 2009년 3분기 11조3599억 원에 달하던 것이 2009년 말 10조9886억 원, 2010년 말 10조3967억 원 등으로 줄었다. 이 기간 동안 기아차 광주공장 협력업체의 대출이 원활했던 점을 감안하면 대출 감소는 대부분 삼성 협력업체에 가해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 협력업체 사장은 모 은행에 운전자금 대출신청을 했다가 삼성 협력업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 역시 "2년 전만해도 2차 협력업체까지 대출을 해줬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기업 할 맛이 안 난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의 경영난은 삼성전자의 행보에 1차 책임이 있다. 기아차와 함께 광주경제의 두 축인 삼성전자가 올해 청소기·세탁기 등 생산물량의 30%를 해외로 돌리면서 협력업체 경영난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바 아니다. 하지만, 수년간 고락을 함께 해온 기업들을 한 순간에 팽개치는 것은 기업윤리상 온당치 못하다는 판단이다. 적어도 협력업체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역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배려하는 게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가 할 일이다. 금융권과 광주시도 우량기업마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의를 통해 자금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은펜칼럼

부도덕에 면죄부 준 국민, 대가 치를 것

임 명 재

4월 11일 총선이 끝났다. 환호와 탄식이 크게 교차한다. 그 결과를 알기 전까지,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측근들의 민간인 사찰 등의 악재들 때문에 새누리당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고 민주통합당은 과반의석에 육박할 것이라는 여소야대의 결과를 예측하는 분석이 많았기 때문에 환호하는 측과 탄식하는 측의 소리가 더욱 컸을 것이다. 이처럼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것은 민주통합당의 어수룩한 선거전략 때문이라는 여론이 많다.

한명숙 당대표를 중심으로 과거 세력들이 재등장하면서 나눠먹기 공천을 한 것과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만한 선거 전략이 없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만을 쫓다가 결국 결정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견고한 지지도 때문이라고 한다.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처럼 활발하게 활동한 결과 기존의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고 미약한 곳에서도 과거와 다른 높은 선택을 이끌어 냄으로써 새누리당의 텃밭을 견고하게 하면서 경합이 치열한 곳과 열세지역에 대한 적절한 공략으로 지역구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에서도 완승을 거두었다고 한다.

나는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정당 간 또는 진보와 보수 간의 경쟁에 대한 시각이 아닌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 논해보고자 한다.

우리는 성장 과정 동안의 교육을 통해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배우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규범에 대해 익혀왔다. 정직한 행위에 대한 보상과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징벌에 대해서도 모두가 알고 있다. 수많은 교회와 성당 그리고 사찰 안에서 각기 믿는 신은 달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한 생활을 실천할 것을 주문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회는 법규와 질서를 깨뜨릴지언정 성공하는 것이 곧 정의라고 믿는 사회풍토가 만연하다.

정부는 노래 가락에서 '술'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청소년유해물이라 판정할 정도로 엄격한 것 같지만 신문지상에 드러나는 소위 사회적 지도층의 제대로 된 처벌이 없는 비윤리적 행위들은 청소년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도덕이 밥먹여주냐? 나만 잘되면 그만이지"라는 사고방식에 확신을 심어준다.

여야를 막론하고 위법을 저지른 자들을 버젓이 공천한다. 정치적 힘이 윤리를 억압한다. 새누리당의 모 후보는 박사논문을 표절했다. 표절한 논문의 오타까지도 똑같이 갖다 붙였다고 하니 '문도리코', 'Ctrl+V'라 불린다고 한다. 지성의 최고권위라 하는 박사논문을 거짓으로 조작한 후보를 선택하고 대한민국의 정치국가대표의 자격을 부여했다.

자신의 선거운동원의 죽음과 관련되고 부정선거로 조사받는 후보가 당선되었다. 법의 판단에 앞서 국민으로 부터 면죄부를 부여받은 것이다. 도대체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들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은 모두 딱 그 후보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졌다고 평가해야하는가?

대한민국은 결국 정치인들에 의해 이끌려진다. 우리나라는 지금 비윤리적 지도자들에 의해 망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연말의 대선에서는 제발 도덕적인 인물을 선택하자. 그게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다. 역사적으로 부패한 정권은 정권의 종말뿐만 아니라 국가가 민족에게 가난과 혼란을 남겨준다. 〈약사〉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無等鼓

범죄의 기억

심리학자들 사이에 떠도는 전설 하나. 장소는 1920년대 중반 독일 베를린 대학교 근처 식당. 대학 관계자 여러 명이 점심을 주문했는데 웨이터는 이들의 주문을 메모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주문한 음식은 정확하게 나왔고, 사람들은 웨이터의 뛰어난 기억력에 감탄하고 자리를 떴다. 그런데 손님 중 한 명이 자리에 물건을 두고 나온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다시 식당으로 갔다. 그는 웨이터의 기억력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웨이터는 멍하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가 누구인지,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모조리 잊어버릴 수 있느냐고 묻자 웨이터는 "음식이 나와 서빙을 할 때까지만 기억한다."라고 답변했다.

러시아의 심리학과 학생이던 블루마 자이가르닉과 그녀의 스승이자 사상가인 쿠르트 레빈은 어떻게 이 같은 일이 가능한지에 의문을 품었고, 수년간의 연구 끝에 1927년 '자이가르닉 효과(Zeigarnik Effect)'를 세상에 발표했다. '끝마치지 못하거나 완성되지 못한 일은 마음속에 계속 떠오른다.'라는 내용이 핵심인데,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첫 사랑이나 틀려버린 시험문제를 더 오래 기억하는 심리현상이 대표적이다.

총선이 끝났다. 하지만, '이기기 위해' 저질러졌던 각종 선거비리에 대한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물론, 불법과 비리에 대한 판단과 처벌은 사법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운 좋게 또는 솜씨 좋게 엄정한 수사의 칼날을 비켜가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4년마다 유권자의 심판을 받고자 하는 정치인이라면, 내곡동 사저나 BBK사건처럼 미제(未濟)로 남겨진 사건들을 유권자들은 잊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총선과 대선이 이어지는 격동의 시절, 마무리되지 못한 수사의 기억을 되새기며 의혹을 키워가는 유권자들을 한 시바삐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사법기관의 의무일 것이다.

/홍행기 정경부차장 redplane@kwangju.co.kr

기 고

북구민의 자부심 '운암도서관 개관'

송 광 운

헬레니즘 학문과 과학의 중심지이기도 했던 알렉산드리아는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이름을 붙여 세운 도시국가였다. 알렉산드리아는 전성기시절 최고의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도서수집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항구에 정박하는 선박뿐만 아니라 지중해를 항해하는 선박을 검색해서 서적을 압수한 뒤 도서관 장서를 늘려나갔다. 심지어 바다 건너 그리스 등 다른 국가에 귀중본이 있다는 정보를 알아내면 거액의 예치금을 맡기고 책을 빌린 후 예치금을 포기하고 귀중본을 차지할 정도로 책 수집에 집착을 보였다. 이런 노력 덕분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70만 장서를 보유했는데 지금의 인쇄본으로 환산하면 10만권정도에 해당된다.

도서관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얼마나 많은 장서와 훌륭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좋은 도서관을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1억 200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미국 의회 도서관'이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도서관으로 우뚝 선 힘은 바로 세상의 모든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끊임없는 열정에서 기인한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프랑수아 미테랑 국립도서관의 경우는 책장을 지상 10층까지 쌓아 올려 외부에서 유리창을 통해 장서를 감상하게 할 정도로 장서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하다.

지역민의 지식창고이자 문화사랑방 역할을 할 북구 운암도서관이 18일 개관한다. 운암 제3근린공원에 위치한 구립 운암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어린이실, 문화강좌실, 세미나실, 종합자료실(디지털자료실), 학습실을 갖춘 '문화의 궁전'으로 역할이 기대되는 곳이다.

운암도서관이 일곡도서관과 함께 우리 북구주민에게 자부심을 심어줄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서의 수집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운암도서관은 일대 주민들의 이용에 필요한 법정보유권수 1만5,000권을 넘어서 3만3,000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지만 15만여 권의 장서 보유가 가능하다. 개관을 앞두고 많은 주민이 벌써부터 1만여 권의 장서를 기증하는 등 앞장서 장서기증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은 도서관운영에 대한 청신호다.

도서관은 지역과 도시를 넘어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국민의 문화적 성숙도를 확인하는 척도다. 도서관은 정보제공뿐 아니라 지식을 기록하고 보존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국가의 지성을 대변한다. 고대 철학자 키케로는 "책이 없는 인생은 영혼이 없는 것과 같다"며 도서관에서 학문을 논하길 즐겼으며, 영국의 성직자 조지 다우슨은 "도서관에는 인류의 일지가 수장되어 있다"고 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도서관은 정보를 소통하고 지식을 창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래에는 지식과 정보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모호한 시대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지식은 다른 사람에게서 전수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지식과 정보의 망망대해에서 도서관이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개관하는 운암도서관이 21세기 대중과 소통하는 선진도서관이자 지역문화의 궁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장서보유를 늘려야 한다. 장서는 도서관의 얼굴이자 도서관을 판단하는 척도다. 운암도서관의 격을 높이는 장서보유는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는다. 〈광주시 북구청장〉

학교급식 때 아이들 '밥상머리 교육' 했으면

아이들 급식을 도와주러 학교에 자주 가는데 요즘 학교는 식당시설이 워낙 깔끔하고, 내부 환경도 쾌적해서 안심이 된다.

그리고 요즘은 아이들이 먹는 음식재료 역시 대부분 국산을 쓰면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고, 학교마다 직영급식으로 책임을 지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니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급식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하지만 아쉬운게 하나 있다. 그렇게 나아진 급식환경과는 별개로 급식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예부터 밥상머리 교육이라 했다. 밥을 흘리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 덜그럭 거리지 말기, 밥을 함부로 남기지 말기, 주위 사람들과 식사 보조 맞추기 등 인간의 삶의 행위 중 가장 기본적인 '식사'라는 행위 안에서 기초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게 이 밥상머리 교육이었다.

그것이 학교에서는 바로 급식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영양사가 있어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챙기긴 하지만 적절한 식습관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저 점심시간 종이 울리면 아이들은 배식을 받고 먹기에만 바빴다. 영양교사나 담임교사들로부터 식사 지도하는 모습도 볼 수 없었다.

요즘 치과에 가면 치료받으러 온 아이들이 많다. 예전엔 섬유질이 많은 거친 채소를 먹어서 이가 튼튼했지만 요새는 아이들이 부드럽고 달콤한 것을 좋아해서 이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급식 반찬도 씹을 필요가 없는 아이들 취향에 맞춘 것들이 많았다. 아이들이 먹지 않고 남긴 반찬을 보면 나물 같은 거친 채소들이었다. 이런 편식습관이 급식에서부터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옛날에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밥상머리 교육조차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 식사하는 시간이 많이 달라져서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이 소홀해 졌다면 이젠 학교에서 급식교육이라도 좀 적절히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이성해·광주시 서구 벽진동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FAX	222-8005〉
정경부	2200-612	〈FAX	222-0195〉
〈대표 FAX	222-4918〉	광고마케팅국	227-9600
사회부	2200-616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267〉	〈FAX	227-9500〉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7-9500〉
여론매체부	2200-621	디자인	2200-536
체육팀	2200-697	서울지사	02-773-9331
사진부	2200-693	기획사업국	2200-555
조사부	2200-571	〈FAX	02-773-9335〉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